

'고대와 인재발굴처에 관한 단상', 그리고 '조민 합격 취소 시위 건의'

안녕하세요, 며칠 전 뉴스에 게재된 '조민 합격 취소'에 관한 인재발굴처의 부정적인 견해를 읽고 나서 고려대학교와 인재발굴처에 관한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고대에 관한 단상>

힘겨운 수험생활을 끝마치고 본교에 적을 두게 된 학우들에게,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에 애착이 묻어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학창 시절 고대를 꿈꿨던 기억, 고대에 다니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소중한 경험을 비롯하여,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고대와 나의 이야기'가 고대생 한명 한명의 가슴 속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고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하고 두근대던 고3 때의 느낌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태어나기를 고대 안암병원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친척 어른 손 잡고 캠퍼스를 산책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입시를 치르다 보니 연세대에 와있었지만, '나이 먹기 전에 고대 한 번 써보자'는 생각으로 원서를 냈고, 마침내 고대하던 합격통지서를 받았을 때, 아무런 후회 없이 자퇴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중 우연히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돈으로 조그만 일을 벌였습니다. 노력 끝에 투자했던 금액을 모두 회수하고 장부에 플러스가 찍히기 시작했을 때, 문득 학교에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학부생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도전을 결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성공을 거둔 것도,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니지만, 모교에 보답하고 부족하게나마 고대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학교 대외협력처에 전화를 걸어 기부에 관해 알아보고, 제가 번 돈으로 얼마 안 되지만 적게나마 기부금을 냈습니다.

모두 고대를 사랑해서 했던 일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학을 앞둔 시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정 입학 관련 뉴스를 보았습니다. '합격 취소' 이외의 판정이 나올 거란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2014년 **위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 **고대가 단호히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을 알고 있었고, (참고자료: '시각장애인 위장' 대입 부정입학자 5명 적발. 2018년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4913070>)

2019학년도 입시를 치른 제 사촌 동생을 돕는 과정에서,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가 입학 사정 시 평가하는 서류자료 관련 사항에 있어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촌 동생이 재학 중 이던 고교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으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학교에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고려대 입학처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학처 직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사촌 동생의 담임 선생님, 진학 관련 부서 선생님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입학처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제공해드렸습디만, 결국 문제의 서류는 고대에 제출하지 못했고, 사촌 동생은 최종 탈락했습니다. (서울대 진학하여 19학번으로 재학합니다.)

고대의 행정처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름의 일리 있는 원칙을 세우고 예외를 허용치 않는 대쪽 같은 자세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의 원칙이, 살아있는 권력을 뒤에 업은 엘리트 집안 출신자에게만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그리고 감히 '**자유, 정의, 진리**'의 가치를 표방하는 제 모교의 행동에서 엿보이는 **기회주의적 태도와 권력 앞에 앞드리는 선택**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 논문 저자 등재/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허위 발급된 확인서 직접 추가 위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 논문 초록 저자 등재/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참고자료: 조선일보 최아리 기자 이정구 기자 임규민 기자, '공범 적시 조국 딸... 고대 "입학취소 없다" 부산대 "법원판단 본 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3/2019111300181.html)

이상은 정경심의 공소장에 적시된 조민의 위조 스펙 7가지 중, 고려대에 제출된 3개의 서류입니다. 만약 조민이 평균적인 가정 출신의 일반 학생이었다면, 혐의를 확인하고도 고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물론 곧 닥칠 사립대학 종합감사에 "쫓아서"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란 세간의 해석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244713i>)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고려대 교직원들이 유흥비와 퇴직자 선물 구매 등에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 학교 교직원 3명은 전임 **비서실장의 정년퇴임 기념 선물로 543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구매**했는데, 한 교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분할 결제한 뒤 영수증을 허위 처리해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고려대 의료원은 **교원 27명의 퇴직 기념품으로 1명당 순금 30돈씩을 지급하면서 총 1억5200여만 원을 전액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고려대 산하 부속병원 **교직원들은 유흥주점·단란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총 631만8500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증빙 없이 부서 운영비에서 **시간 외 근무 보상 명목으로 563건, 5억2538만원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교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출·퇴근 목적 KTX 이용료 500여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이 밖에도 해외 출장을 가면서 규정상 정해진 교무위원이 아닌 장·차관 기준으로 정산해 **여비를 약 1200만 원 더 받아낸 전임 총장**, 국가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의 비용을 3000여만 원 부당하게 타낸 교수** 등의 비리가 확인됐다."
(참고자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05427/>)

당신들이 싼 똥의 찢값은, 당신들이 치르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바짝 엮드리고 굴종하여, 당면한 위기만 어떻게든 넘겨보려는 얄팍한 수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속죄가 아닌 면피를 택하는 건, 항상 정의의 길을 달려야 하는 **고려대의 이름에 걸맞은 행동이 아닙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학 안내 사항입니다.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

“고려대학교는 입학전형을 통해 **[고려대학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실현할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선발 및 교육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로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http://www.korea.ac.kr/mbshome/mbs/university/subview.do?id=university_020100000000)

작금의 사태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고려대 입학처에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보이는 태도가, **"고려대학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에 걸맞은 인재를 발굴해내기 위한 최선의 태도**입니까?

<조민 합격 취소 시위 건의>

고려대 인재발굴처가 보이는 **부정의·불공정**에 분노하며, 저는 '**조민 합격 취소 시위**'를 건의합니다. 비록 제가 시위 경험이 부족하지만 (유일한 참가 경험이 중앙광장에서 열렸던 지난번의 조민 관련 시위입니다) 조민의 부정 입학 건에 관한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의 입장 재고 및 공식발표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관련 시위를 준비 중인 분이 계시거나, 시위 진행에 협조 또는 참여하실 수 있는 분께서는 **saynotomincho@yandex.com** 또는 고파스 쪽지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고대 학우분, 그리고 선배님들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민 합격 취소 시위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시위 장소와 날짜를 게재하겠습니다.

학부생의 입장에서, 학교의 졸속행정이나 수강 신청과 관련된 부족함에 불만을 품은 적은 많았지만, 단 한 순간도 '고려대학교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 민수